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2018. 1. 18.



목 차

I 해양수산업 현황

II 정책 추진방향

III 추진과제



I | 해양수산업 현황

1 특성과 잠재력

해양수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필수 기반 산업

- ▶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운이 담당
- ▶ 1인당 수산물 소비량(60kg) 세계 1위
- ▶ 해양수산업의 GDP비중 : 6.4%('14)



세계 해양수산업 지속 성장 전망(OECD, '16)

- ▶ 세계 해양수산업 총 부가가치 ('10) \$1.5조 → ('30) \$3조
- ▶ 해양관광·레저, 수산가공업, 양식업, 해양자원 산업이 성장세 주도

연안지역의 핵심 산업이자 일자리 기반

- ▶ 연안지역 총생산 483조원(전국의 34%)
- ▶ 지자체별 중장기 해양수산업발전계획 수립 (부산, 충남, 경북, 전남, 제주 등)

세계 각국은 공격적인 해양전략 수립 시행

- ▶ 중국 : 해양생산액을 '30년까지 GDP 14%까지 확대
- ▶ 일본 : 제2차 해양기본계획 수립·추진
- ▶ 영국 : '20년까지 해양산업 연평균 4%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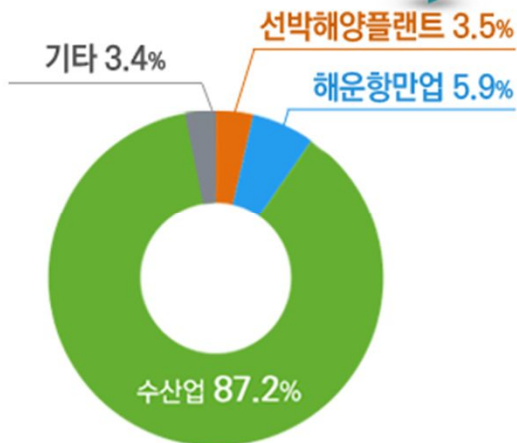
I | 해양수산업 현황

2 산업 현황



사업체 현황

기업수 :
14만 4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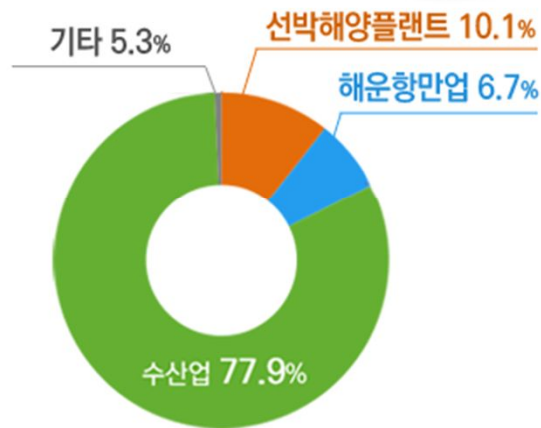
기업규모 : 100인 미만 중소기업 99%

- 300인 이상 대기업은 해운·항만건설업
선박·해양플랜트에 주로 포진



종사자 현황

종사자 수 :
134만명



근로형태 : 상근직 50%, 임시·일용 50%

- 해양분야는 상근 근로자 위주이며,
수산분야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음

I | 해양수산업 현황

3 여건 및 정책 대응방향

해운·항만

- ☑ 한진해운 파산 이후 매출액·선대규모가 대폭 감소
- ☑ 자동화·대형화 등 항만간 경쟁 가중

세계 5위 해운강국 위상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과 항만 스마트화로 경쟁력 강화

수산

- ☑ 양식업은 양적 성장 중이나 연근해 어업은 생산량 감소
- ☑ 단순 가공위주로 부가가치가 낮고, 어업인간 소득도 불균형

적극적인 자원관리, 양식업의 질적 성장, 수산물인 식품산업화

新해양산업

- ☑ 높은 성장세를 보이거나, 해양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음
- ☑ 신산업의 특성상 기업 및 매출 규모가 미약

기술 및 자금지원, 컨설팅 등 맞춤형 창업 생태계 조성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일자리 안정화



新해양산업을 일자리 창출형 산업으로 육성

Ⅲ | 정책 추진방향

1

주력 해양수산업의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3

「어촌 뉴딜 300」 Project를 통해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Ⅲ. 추진과제

01

주력 해양수산업의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1 해운산업 NEW START와 항만 민간투자 확대
- 2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 3 해양관광레저 산업 육성

I | 해양수산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1 해운산업 NEW START와 항만 민간투자 확대

해운산업 재건 프로그램 운영

- ▶ 해양진흥공사 설립('18.7, 자본금 3.1조원)
→ 50척 신조발주(4.2조원)
- ▶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중복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 ▶ 친환경 대체 건조 보조금 도입('18.1~)
- ▶ '해운-조선-화주' 간 상생방안 본격 추진

항만 민간투자 확대

- ▶ 항만 재개발 본격화
(부산 북항 통합개발, 인천 드림 아일랜드 등)
- ▶ 항만배후단지 민자 유치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 광양항 : 국가 · PA 공동개발
- ▶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착수('18. 下)
* 부산 : 해양레저기기 선박 등
광양 : 해운물류 R&D 기업

민간 투자



해외 진출 및 스마트 해상물류 실현

- ▶ 한국형 글로벌터미널 운영사(K-GTO)의
아시아권 터미널 운영권 확보 추진
- ▶ 러시아, 베트남 등 해외항만 개발
* 해외항만개발 특화펀드 조성 방안 마련
- ▶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구축
* 자율운항선박-초고속 해상통신망-스마트 항만 연계

1 | 해양수산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2 |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소자본 벤처창업 지원

- ▶ 창업 지원기관 지정('18.2), 지역 특화 창업 지원센터 확대(4 → 5개소)
- ▶ 기업전용 R&D 확대, 창업기업 R&D 의무지원 비율 도입(40%)
- ▶ 수산모태펀드 추가 조성(150억원), 해양모태펀드 신설 검토

청년 귀어

- ▶ 어촌계 가입기준* 개선
* (기존) 수협조합원만 → (개선) 어업인이면 누구나
- ▶ 청년 영어정착금 지원 신설(월 100만원), 창업·주택자금지원('18년, 500억원)

해양신산업 육성

- ▶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연관산업 융복합(강원 고성)
- ▶ 해양바이오 بانک 구축('18.9) 및 상용화 지원
- ▶ 조류·파력 에너지 실해역 시험장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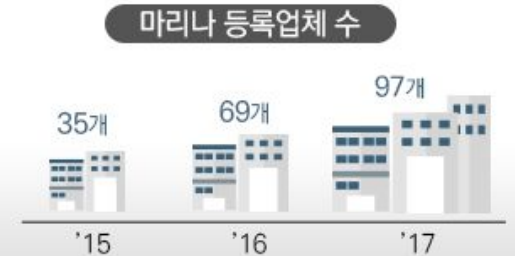


1 | 해양수산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3 | 해양관광레저 산업 육성

마리나 대중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 ▶ 거점 마리나 항만 확충(3개소), 맞춤형 마리나 항로 개발
- ▶ 요트 제조·수리·금융·판매 등 연관 산업 육성
*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착수, '18.2), 대형 요트 시제선 건조(100ft급)
- ▶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선정 및 사업추진 전략 수립('18.上)



크루즈 산업 재도약

- ▶ 다각적인 Port Sales로 중국편중 구조 다변화(한-대만 크루즈 운항 본격화, '18.上 / 3항차)
- ▶ 내국인 수요 창출(관광체험단 확대, 항로개발, 홍보, 시범운항 등)
- ▶ 크루즈 인프라 지속 확충(전용부두 9 → 12선석)

관광콘텐츠 개발

- ▶ 해중경관 시범지구 지정('18.上), 수중레저 클러스터 조성 추진
- ▶ 태안, 완도 등 4개소를 중심으로 해양치유 Biz모델 개발
- ▶ 해안누리길(53개소)의 테마 코스화(총무공길, 장보고길 등)
- ▶ 안전과 자원관리가 조화된 선진국형 낚시 레저 문화 조성

Ⅲ. 추진과제

02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 1 수산업의 생산 혁신
- 2 수산식품의 수출전략 산업화
- 3 어업외 소득창출과 복지 확대

2 | 어가 소득 5천만원 시대

1 수산업의 생산 혁신

잡는 어업 : 생산량 회복

- ▶ 사라진 어종 되살리기
 - 명태 방류 확대('17년 30만마리 → '18년 100만마리)
 - 자원 감소 어종 회복 추진(낙지 · 주꾸미 등)
- ▶ 어업인 참여형 자원관리체계 구축(휴어제 검토 등)
- ▶ 바다숲('18년 3천ha) 및 바다 목장(5개소) 조성
- ▶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단속
 - 대형어업지도선 4척 추가 투입 및 한중 공동단속 시스템 운영
- ▶ 바닷모래 채취 최소화로 해양생태계 보전
 - 골재 중 바닷모래 비중 축소('17년 11% → '22년 5%)

양식어업 : 첨단화 · 규모화

- ▶ 참다랑어 상업출하, 뱀장어 완전양식기술 조기 산업화
- ▶ 친환경 양식기술 보급 확대(첨단 수처리기술 등)
- ▶ 고수익 품목(김 등) 면허 확대
- ▶ 대규모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확대(괴산·화순 준공, 추가 1개소)
- ▶ ICT, IoT기반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추진(경남 고성)
 - * 특수목적법인 설립('18. 下, 지역어민·기업·발전소 공동 투자)



2 | 어가 소득 5천만원 시대

2 수산식품의 수출 전략 산업화

글로벌 수산식품산업 육성

- ▶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
 - 목포(예타중), 부산(예타신청 추진)
- ▶ 김 수출 확대('17년 5억\$ → '22년 8억\$), 참치·어묵 등 글로벌히트상품 개발
 - * 어묵산업 발전 방안 마련('18.下)

◆ 김 수출 5억 달러 돌파!



수출 시장 다변화

- ▶ 美, ASEAN, EU 등으로 시장 다변화
 - 해외 현지 수출지원센터 확대 (7개소 → 10개소)
 - 'K-SEAFOOD Global Week' 운영
 - * '18.11월(2주간) / 10~15개 국가 동시 개최
- ▶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한국 수산식품 홍보



수출 인프라 강화 및 제도 정비

- ▶ 활수산물 수출물류센터 확충(3개소)
 - * 부산, 인천, 완도
- ▶ 활어 전용 컨테이너 등 신선유통 설비 확충
- ▶ '수산식품산업발전법' 제정 추진('18,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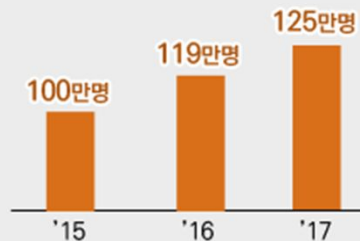
2 | 어가 소득 5천만원 시대

3 어업외 소득창출 및 복지 확충

어촌관광 자원 등을 활용한 소득 창출

- ▶ 경관, 문화역사를 활용한 어촌테마마을 조성
- '22년까지 전국 10개소 조성
- ▶ 어촌체험마을 서비스 개선
- 숙박 등 서비스 수준을 평가·공개(★등급)
* 어촌체험마을 112개소
- ▶ 어촌특화지원센터 확대(4개소→10개소)
* 창업컨설팅, 상품개발 지원 등

어촌마을 체험객



경영 안전망 강화

-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55 → 60만원/년)
* 8km이상 떨어진 도서 → 전도서
- ▶ 어업용 토지 양도세·취득세 감면
- ▶ 수입보장보험 도입 추진 ('18년 시범사업 착수)
- ▶ 양식재해보장 보험 확대
- ▶ 어선원보험 가입대상 확대 (어선 4톤이상 → 3톤이상)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 ▶ 어업도우미 활성화
* 지원단가 인상(7 → 10만원/일), 자부담율 인하(30 → 20%)
-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운영
* 섬지역, 벽지 어촌 지역에 출장 의료서비스 제공
- ▶ 가사도우미 신규 지원
* 어촌거주 65세이상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가구, 경로당 등
- ▶ 도서민 교통권 확보
-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 도서민 운임지원

Ⅲ. 추진과제

03

「어촌 뉴딜 300」 Project를 통해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 추진 필요성

2 사업유형

3 추진방안

4 기대효과

3 | 어촌 뉴딜 300 Project

1 추진 필요성

-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대형 SOC는 선진국 수준으로 완비
* 세계경제포럼(WEF)의 137개국 인프라 수준 평가('17.9월)결과 우리나라는 도로 12위, 철도 7위, 항공 13위, 항만 23위
- ✓ 반면,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생활공간이자 핵심시설인 어항·포구는 매우 낙후
* 소규모 항·포구(1,294개)의 개소당 연평균 투자액은 5천만원에 불과

접안시설 파손



대합실 미비



구조정 계류시설 미비



안전시설 노후화



▶ 「어촌 뉴딜 300」 추진으로 소규모 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

3 | 어촌 뉴딜 300 Project

2 사업 유형

해상교통시설 정비형

▶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및 현대화

* 여객선 기항지 총 340개소(소규모 항포구 기항지는 170개소)

- 접안시설 보강, 수심확보, 정온도 개선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투자로 효과 극대화

▶ 여객 편의 시설 확충 (대합실, 화장실 등)



해양재난사고 대응형(해경 협력)

▶ 연안구조정 전용 접안시설 설치 및 출동항로 확보준설 등

* 전체 95개소 중 전용 접안시설 미확보 72개소 대상

▶ ICT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구축 및 안전난간, 인명구조함, 구명사다리 보강

→ 이용자가 많은 어항 · 항포구부터 우선 추진

▶ 친수시설 및 어항 · 항포구 안전점검 시행(연 1회 이상)



3 | 어촌 뉴딜 300 Project

2 사업 유형

어촌마을 재생형

- ▶ 쌈지공원 조성
- ▶ 어촌마을 벽면 디자인 개선
- ▶ 마을도로 정비 등



어촌관광 수요 창출형

- ▶ 레저선박 전용 계류시설 확충
- ▶ 유서깊은 항·포구 복원을 통한 관광명소화
* 소규모 역사 문화관 건립, 나루터 복원(어린진, 법성포 등)
- ▶ 어구창고 설치 등 어항 경관 개선



3 | 어촌 뉴딜 300 Project

3 추진방안

해수부, 해경, 어촌어항협회,
해운조합 등 합동 T/F 운영

300개 선도대상 선정
(유형별 우선순위 선정)

단계적 현대화 및
성과 확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촌 뉴딜 300」 종합계획 마련('18.上)

4 기대효과

어촌주민·관광객의
해상교통 안전 확보

+

어촌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 등
사업기회 확대)

+

소외지역 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2018년을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해양수산업의 GDP 비중

6.4% ('14)  10% ('30)

구분	'16년	'18년	'22년
해운산업 매출액	29조원	30조원	50조원
항만인프라 민간투자	1.3조원	2.2조원	2.9조원
마리나 서비스업	69개	110개	400개
수산물 수출	21.3억불	27억불	40억불
어가소득	4.7천만원	5천만원대	6천만원대
연근해 어획량	93만톤	100만톤	110만톤